



기독일보



2024년 5월 1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4호

“큰 교회는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가”

제7회 사회적목회컨퍼런스와 제4차 목회자 취업박람회, 30일 성락성결교회서 열려

제7회 사회적목회컨퍼런스와 제4차 목회자 취업박람회가 30일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목회사회학연구소, 크로스로드 등 6개 단체가 주최했다. 주최 측은 출판·마을 목회·개인 사업·기술 전문직 등 각종 분야에서 상담 부스를 설치해 이종직을 원하는 목회자들과 상담을 진행했다.

여러 상담 부스 중 기술전문직 분야에 속한 탐비직업개발원이 눈에 띄었다. 탐비직업개발원은 에어컨설치, 제과제빵, 승강기관리사 등 각종 기술을 목회자들이 터득하고 이들의 생계적 자립을 돕는 단체다. 목회자들이 이 단체에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비용 전액을 크로스로드(이사장 정성진 목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부스에선 탐비직업개발원의 에어컨설치 교육을 담당하는 김용기 분향교회 목사가 목회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했다. 에어컨 설치·판매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김 목사는 “탐비직업개발원에서 벽걸이스탠드형 에어컨 설치 관련 기술을 일주일 만에 터득할 수 있다”며 “에어컨 대당 설치 시간이 3시간 밖에 되지 않고 하루 한 건 설치 당 20만원까지 수

익을 얻을 수 있어, 목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훈훈출판(소재용 목사, 출판/문화), 겨자씨커뮤니티·마을학연구소(박홍래·민건동 목사, 마을목회), 카페 라운드리(이광복 목사, 개인사업), 라이프호프/굿미션네트워크(장진원 목사, NGO), 얼룩말식당(김철수 목사, 개인사업), 사람을 돕는 마을 사람들(김주선 목사, 사회복지), 라이프 재난복구(고영수 집사, 기술/전문직), 마을공작소(안준호 목사, 기술/전문직), 다함께 돌봄센터(라종준 목사, 사회복지)가 이종직 목회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과 상담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한국교회 [살아] 있는가?’, 2부 ‘한국목회자 [살아] 있는가?’순으로 진행돼 이종직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했다. 1부 세미나에서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 이사장)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다”며 “과연 지역의 큰 교회는 미자립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지원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지역의 큰 교회가 작은 교



상담 부스에서 목회 이종직 관련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노형구 기자

회를 돌보지 않는 ‘사람의 나눔이 없기에, 기독교가 사랑과 희생을 예기해도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 결국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교회가 일어나서 행실로 살아가는 작은 천국을 이루고, 결국 많은 이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는 “한국교회에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가 따르면, 소명을 후회하는 목회자 비율이 30%로 파악됐다. 이는 3년 전보다 8% 증가한 수치”라며 “이는 목회자의 성실성 결여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목회방식에 변화가 필

요하다는 방증이다.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이 한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울타리에 한정된 사역이 아닌, 삶의 현장에 녹아들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목회자 시급하다”며 “소형교회들은 특색에 맞는 목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한 조사에서 교인 숫자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 목회자들 중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들의 목회 만족도는 약 77%로 파악됐다. 반면 소형교회 목회자 중 성장을 추구하는 목사들의 목회 만족도는 66%에 불과했다”며 “이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목회적 욕구가 클수록 목회적 자존감이 비례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마을 목회가 대두된다. 곧 교회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외부의 다양한 자원과 결합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이라며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다면, 그것을 표출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와 이웃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새로운 일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 (대안)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박홍래 목사(사회적목회포럼 공동대표)는 “여러 신학대학원들이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서 이종직 관련 수업을 개설하기도 하나, 목회자의 이종직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마을 목회를 시작할 때 이종직 목회자들은 행정적 전문성 결여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종직을 한다 해도 전문성 결여로 결국 목회자들이 단순 노무직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러웠다”며 “성공적인 이종직 목회를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박 목사는 또 “마을 목회에서 주민들에게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섬김으로 다가선다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교회가 마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섬기

는 방식이 성공적 마을 목회를 위한 전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영적 초점을 견지하면서, 비록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처럼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섬긴다면, 마을 목회는 기필코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개회예배에서 ‘나는 내 곁에서 있으라’(신명기 5장 30-31절)는 제목으로 설교한 지형은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며 “마리아는 봉사로 분주했던 언니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의 곁에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를 꾸짖어달라고 요청한 마르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생명력을 잃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적 자리”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이천 년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기도 했다”고 했다.

이처럼 2부 세미나의 열린 포럼에선 정성진 교수(실천신학), 박대성 목사(송학감리교회) 등이 목회자들과 토의했다.

노형구 기자

영화 ‘야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되길

커넥트픽처스, 30일 제작보고회 및 VIP 시사회 개최

커넥트픽처스(대표 남기웅)가 기독교 단편 극 영화 《야소》의 제작보고회 및 VIP 시사회를 30일 오후 서울 명동 롯데시네마 에비뉴엘에서 개최했다.

시사회는 남기웅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영화 상영 이후 오윤진 감독이 영화 제작 계기 및 배경에 대해 발언했다.

오 감독은 “2021년 기독교 영화인 〈담〉을 찍고 그때 당시 마음이 뜨거웠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쓰다가 둘째 아이를 낳은 나이에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야소〉의 시나리오가 쓰여졌고 아이를 낳고 육아에 매진하면 영화 제작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과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야소〉를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

었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여건이 정말 부족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많은 여건을 열어주셨다”고 했다.

그녀는 “이 영화는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만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찍을 수 있었던 영화이다. 특히 저는 모든 과정에서 일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영화 제작을 하면서 너무 필요한 것이 많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제작하면서 성화 레퍼런스를 찾으면서 동양화 성화를 찾아봤지만 많지 않았다. 동양화로 성화를 그린 윤보 김기창 화백의 그림 몇 점을 찾아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동양화를 전공하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회의하면서 부탁을 드렸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동양화를 그려주셨다. 그래서 영화 중간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동양화로 그려주시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며 “저는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상상할까 궁금했다. 그런데 김기창 선생님 그림을 보고 놀랐으며 그것을 스크린에 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상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됐다”고 했다.

오 감독은 “이 시대는 사실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어떤 누구도 기적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으면 그분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께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보셨으면 좋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좋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계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있는 많은 분이 계시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다. 미디어는 이 시대에 정말 소용하기 아주 좋은 매체이며 미디어가 좋은 선교의 도구라 될 수 있으므로 기독교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감독들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



기독교 단편 극 영화 《야소》의 제작보고회 및 VIP 시사회가 열린 현장의 모습. ©최승연 기자

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녀는 “다음번에는 조선시대 개신교가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조선 땅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했는지, 그 시대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조선 땅에 들어와 심정이 어려웠는지 그것을 위해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그것이 영화로 제

작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봉화현교회 호병기 목사가 발언하기도 했다. 봉화현교회는 영화 후원을 하기도 했다. 〈야소〉는 한국 기독교의 밑거름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성경 번역,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장대현교회 등을 모티브로 제작된 기독교 단편 극 영화이다. 최승연 기자

8·9호선 석촌역 10초
석촌호수 · 한강을 품은 최고의 입지!

리버레이크 송파
RIVER LAKE SONGPA

933 933

8 9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021. 11. 23.
다지 전체 면적비율 63.7% 사용권면적 확보 (사유지면적 4,259.90㎡ 대비 확보면적 2,717.76㎡ 비율 63.7%)

※조합원 자격기준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입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원 모집 차수 또는 동·호수에 따른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법 등으로 정한다. ■ 건축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허가신청의 조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기입한 조합원의 동·층·호수·양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배치 업무일체의 권한을 업무대행사에 위임한다. ※상기 조건에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부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4천만원대!
분양가 5억원대!

시공예정사 대우건설

석촌역10초역세권 · 35층 한강조망권 · 잠실중심생활권
중도금 무이자 · 송파 랜드마크 · 청약특장 무 · 35층 상향확정

상담문의 02)588-1800